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SENIOR 조선

NOVEMBER
2015
VOL.43
senior.chosun.com

Come Inside

유네스코가 인정한 시계 마을
라쇼드퐁 & 르로클 II
약차로 지키는 겨울철 건강

PIAGET

PERFECTION IN LIFE



-Manhattan, New York-

Piaget Altiplano
Pink gold bracelet 38 mm and
34 mm set with diamonds.
Piaget, the Master of ultra-thin.

piaget.kr





Ermenegildo Zegna

Su Misura

The Ultimate Casual Luxury in Made to Measure

06

Nouveau

액티브 시니어라면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소식들.

08

CHECK IT

이번 시즌 놓치지 말아야 할 아우터가 있다.
70년대 스타일 룩, 개성 있는 패턴 룩, 클래식 룩을
연출할 때 1순위로 필요한 것. 바로 체크 재킷이다.

10

HAIR LOSS TREATMENT

두피도 피부처럼 부지런히 관리해야 탈모를 막을 수 있다.
제형도 종류도 다양한 탈모 방지 관리 제품들만 모았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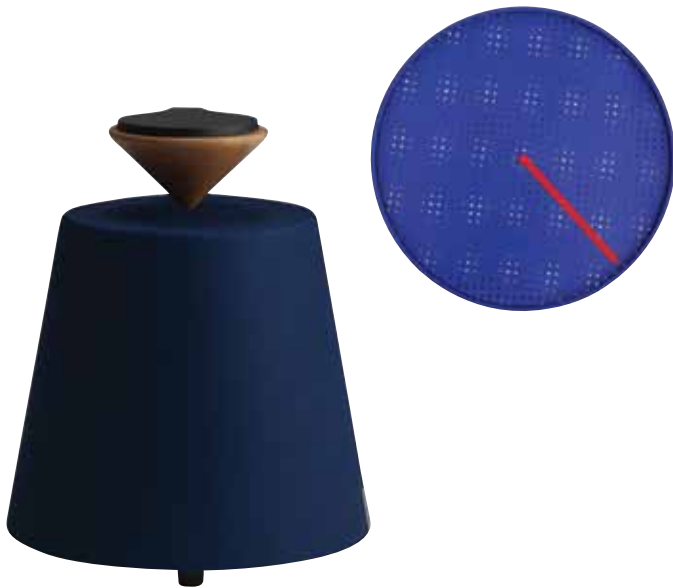
Deep and Calm, NAVY

안정감, 차분함, 진중함 이 세 박자를 갖춘 색.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적절한 컬러를 고르기 힘들 때
네이비가 탁월한 선택이다.

14

이은경의 시계 여행 유네스코가 인정한 시계 마을 라쇼드퐁 & 르로클 II

전 세계에서 가장 시계 산업이 발달한 도시, 시계 산업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도시, 라쇼드퐁과 르로클로 들어가보자.



16

해외로 귀농할까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요즘,
해외 농산물뿐 아니라 해외 농업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우리의 선진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산업, 해외 농업에 대해 알아본다.

18

약차로 지키는 겨울철 건강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환절기 11월, 약차와 가까워져야 할 때다.

19

혼슈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다

일본을 구성하는 4개의 섬 중 가장 큰 섬인 혼슈.
온화한 기후에서 여유로운 라운딩을 즐기고 싶다면
혼슈로 눈을 돌려봐도 좋겠다.

20

삶에 재미와 희망을 주는 '텃밭 이야기'

시니어 포털 유어스테이지 홈페이지(www.yourstage.com)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뮤니티 또한 텃밭을 일구는
회원들의 일상을 담은 '텃밭 이야기'다.

21

인생 제2막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

시니어파트너즈 앙코르스쿨

중장년 교육 전문기업 (주)시니어파트너즈는 시니어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2

이달의 정보

고성능 자동차, 뛰어난 착석감을 자랑하는 체어,
F/W 시즌 스타일링에 필요한 스카프,
자연 속에서 이웃과 소통하는 집 이야기를 담은 책 등을 만나보자.



피아제 알티플라노 골드 브레이슬릿 컬렉션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편안하고 시크한 멋을 더해줄 워치.
알티플라노 골드 브레이슬릿 컬렉션은
오팔 화이트 다이얼 위에 새겨진 오토매틱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매뉴 팩트 피아제 534P
기계식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42시간 동안 자동으로 작동 가능한
이 무브먼트는 오프 올로제리 피아제의
매뉴팩처에서 정교한 워치메이킹으로 생산된다.
브레이슬릿은 유려한 곡선 라인과 유연한 움직임이
완벽한 착용감을 선사해준다. 간결한 선,
날렵한 시곗바늘로 더욱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문의 02-3449-5934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PARTN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이사 조규숙 ks.cho@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황정원 hjw@chosun.com
기자 조가희 cgh@chosun.com
객원기자 김우성 ws.kim@yourstage.com
이은정 euninsa@gmail.com
사진 C.영상미디어
디자이너 장선희 rioba@chosun.com
교열 최귀열

ADVERTISING & MARKET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lfl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교회사
출력 아이맨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경기 분당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 지역의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서울 강남, 신사, 압구정, 청담, 잠실, 송파, 이태원,
상청 및 경기 분당의 변화가 카페, 레스토랑, 병원, 은행,
호텔, 스포츠센터, 수입자동차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탐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ROGER DUBUIS

HORLOGER GENEVOIS



EXCALIBUR

자체 매뉴팩처 무브먼트 RD01SQ
스켈레톤 더블 플라잉 투르비옹



궁극의 파인 워치메이킹 기술력으로 모든 무브먼트에 파인 워치메이킹에서
가장 까다로운 마크인 제네바 실 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매뉴팩처.

현대백화점 본점 02 3449 5914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02 2118 6026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 3213 2244



PERFUME

툼 포드 뷰티,
베네시안 베르가못 향수 출시

툼 포드 뷰티가 이탈리아 정취가 묻어나는 '베네시안 베르가못'을 선보인다. 주로 여행에서 향수에 대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톼 포드가 이번 시즌에는 이탈리아의 정취를 표현했다. 향의 귀족으로 불리는 고귀한 베르가못을 원료로 한 것이 특징. 베네시안 베르가못 향수의 첫 향은 스파클링하고 청량한 시트러스 향을 발산하고, 그 뒤 따뜻한 무드의 페퍼우드, 밀키 샌들우드, 로스티드 톱카 향으로 이어진다. 고급스러운 우디 향으로 마무리해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관능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한다. 향수 보틀은 조향사들의 어두운 갈색 약병에 영감받아 제작한 시그니처 프라이빗 블렌드 보틀로 디자인했다. 한편, 톼 포드 뷰티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전원에게 1:1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귀족 향수라 불리는 '베네시안 베르가못'은 갤러리아 명품관, 신세계 강남점, 현대 본점과 판교점에서 만날 수 있다. (50ml 27만원/100ml 37만원/250ml 65만원)

문의 02-3440-2945 **Writer** 조가희

TRAVEL

마리아나 관광청,
윈더걸스 홍보대사 위촉식

마리아나 관광청이 지난 10월 14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국내 주요 매체와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마리아나 관광청 미디어 테이블 2015'를 열고, 윈더걸스를 마리아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마리아나 관광청 주디 토레스(Judy C. Torres) 부청장이 참석해 윈더걸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환영사를 통해 마리아나 제도의 최대 인바운드 국가인 한국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윈더걸스는 최근 촬영 목적으로 방문한 사이판과 로타에서 스킨을 맛으며 스노클링을 한 경험 등 다양한 여행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마리아나 관광 홍보 대사로서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바다 사진 전문 사진작가 김울프 작가를 초청해 미니 토크를 진행하고 현장 SNS 이벤트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로 참석자들의 큰 와 함께 한국 시장에 마리아나의 젊고 활동적인



자료제공: 마리아나 관광청 한국사무소

호응을 얻었다. 마리아나 관광청 한국 사무소의 신동훈 팀장은 "앞으로 윈더걸스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년 마리아나 현지에 새로운 호텔이 오픈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미디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2-777-3252 **홈페이지** www.mymarianas.co.kr **Writer** 조가희

Nouveau

액티브 시니어라면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소식.



LIVING

원마이 스마트 체중계 국내 출시

심플하면서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원마이 체중계는 정확한 실측과 스마트한 기능을 자랑하는 원마이의 야심작이다. BIA 생물학적 저항 측정 방법으로 체중, 지방, BMI, 기초대사량, 신체 나이 등 8가지 신체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 스마트 디바이스와 블루투스로 동기화가 가능하며 데이터 저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앱을 구동하면 신체 상황에 대해 평가, 점수를 매겨줄 뿐 아니라 데이터를 추적 기록해 보고서 형식으로 알려준다. 최대 16명의 데이터까지 분석할 수 있으며, iOS와 안드로이드 계열 대부분의 디바이스와 호환 가능하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두 가지. 문의 1644-5513 **Writer** 황정원

BOOK

의사들의 양심고백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고, 시술받는 의료계의 비밀에 대한 책들이 연이어 출간됐다. 먼저 <소금중독>(김성권 지음, 북스코프, 1만6천5백원)은 세계적인 콩팥병 명의가 소금중독의 실체와 해법을 밝힌 책이다. 최근 탄수화물 중독과 더불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금중독. '적당히 먹어라'와 '아예 먹지 마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곤도 마코토 지음, 김윤경 옮김, 1만3천원)은 다소 충격적인 제목이다. 저자는 '나를 병은 약을 안 먹어도 낫는다'며 약의 90퍼센트는 무효능에 부작용 덩어리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지금 즉시 가능한 한 모든 약을 끊을 것을 추천한다. 여러 가지 약병을 부어안고 사는 시니어라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임플란트 위험하다>(최병호 지음, 맥스, 1만5천원)는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준다. 저자는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 수술을 대중화시킨 것으로 유명한 치과 전문의다. 그런 그가 역설적으로 임플란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수술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 풀어놓았다.

Writer 황정원



FASHION

닥스 셔츠, 기모 셔츠 & 카디건 스타일링

트라이본즈에서 전개하는 브랜드 닥스 셔츠가 15F/W 시즌에 어울리는 따뜻하고 분위기 있는 스타일의 기모 셔츠와 카디건을 제안한다. 기모 셔츠는 베이식한 셔츠 디자인에 도트 패턴 디테일이 돋보이는 아이템. 평소에 포멀한 룩에 지루함을 느꼈다면 기모 셔츠로 새로운 룩을 시도해도 좋겠다. 컬러는 포멀한 네이비와 강렬한 레드 2가지로 선보이며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환절기와 겨울에 활용도가 좋은 빅체크 카디건은 무채색 컬러에 체크 패턴을 더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착용감이 뛰어나고 감촉이 부드러워 데일리 룩으로 활용해도 좋다. 비즈니스 룩부터 캐주얼 룩까지 어떤 스타일에도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번 시즌 기모 셔츠 & 카디건과 면 팬츠를 매치한다면 편안함과 동시에 훈훈한 분위기의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또는 다가오는 연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기모 셔츠와 카디건을 코디해 세트로 선물해도 좋다. 가격은 기모 셔츠 16만8천원, 카디건 29만원.

문의 080-858-4600 **홈페이지**: www.daksshirt.com. **Writer** 조가희



MARSHAL
PREMIUM GOLD EDITION V5



편안한 스윙
정확한 방향성!

범접할 수 없는 기술의 상징!
MARSHAL!



CHECK IT

아이템 하나로 다양한 룩을 연출할 때
이번 시즌 놓치지 말아야 할 아우터가 있다.

70년대 스타일 룩, 개성 있는 패턴 룩,
클래식 룩을 연출할 때 1순위로 필요한 것이
바로 체크 재킷이다.

Writer 조가희 · Photographer 양수열(c. 영상미디어)



맨 위 왼쪽부터 좌우 순으로

차콜그레이 컬러에 하늘색 라인으로 체크를 완성해 점잖은 신사를 연상시키는 체크 재킷은 **닥스 신사**, 85만원. 더블 버튼 디자인이 개성 있는 느낌을 내는 체크 재킷은 **일레븐티**, 83만원. 세련된 청남색에 굵직한 체크가 포인트인 가벼운 재킷은 **브리오니**, 790만원. 경쾌하게 어우러지는 컬러 조화의 체크가 멋스러운 재킷은 **에스티듀퐁**, 229만원. 옷깃에 달린 디테일이 돋보이며 부드러운 감촉이 특징인 체크 재킷은 **알테아**, 1백15만원. 밝은 체크 분위기가 활동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체크 재킷은 **볼리올리**, 155만원. 포멀한 룩에 어울리며 보온성이 뛰어난 체크 재킷은 **브루넬로 쿠치넬리**, 537만원. 톤온톤 그레이 컬러가 만든 체크가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재킷은 **에스티듀퐁**, 429만원.

문의

닥스 신사 1544-5114
볼리올리 02-796-1082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브리오니 02-540-4723
알테아 02-310-1820
에스티듀퐁 02-2106-3577
일레븐티 02-3449-5360

어깨 : 3.18Kg

각 영역에 독립적으로 반응하는 포켓
스프링 코어 매트리스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몸통 : 32.53Kg

세계최고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갖춘
베이스슬랫과 정력조절 포인트가 척추에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팔뚝, 손 : 2.8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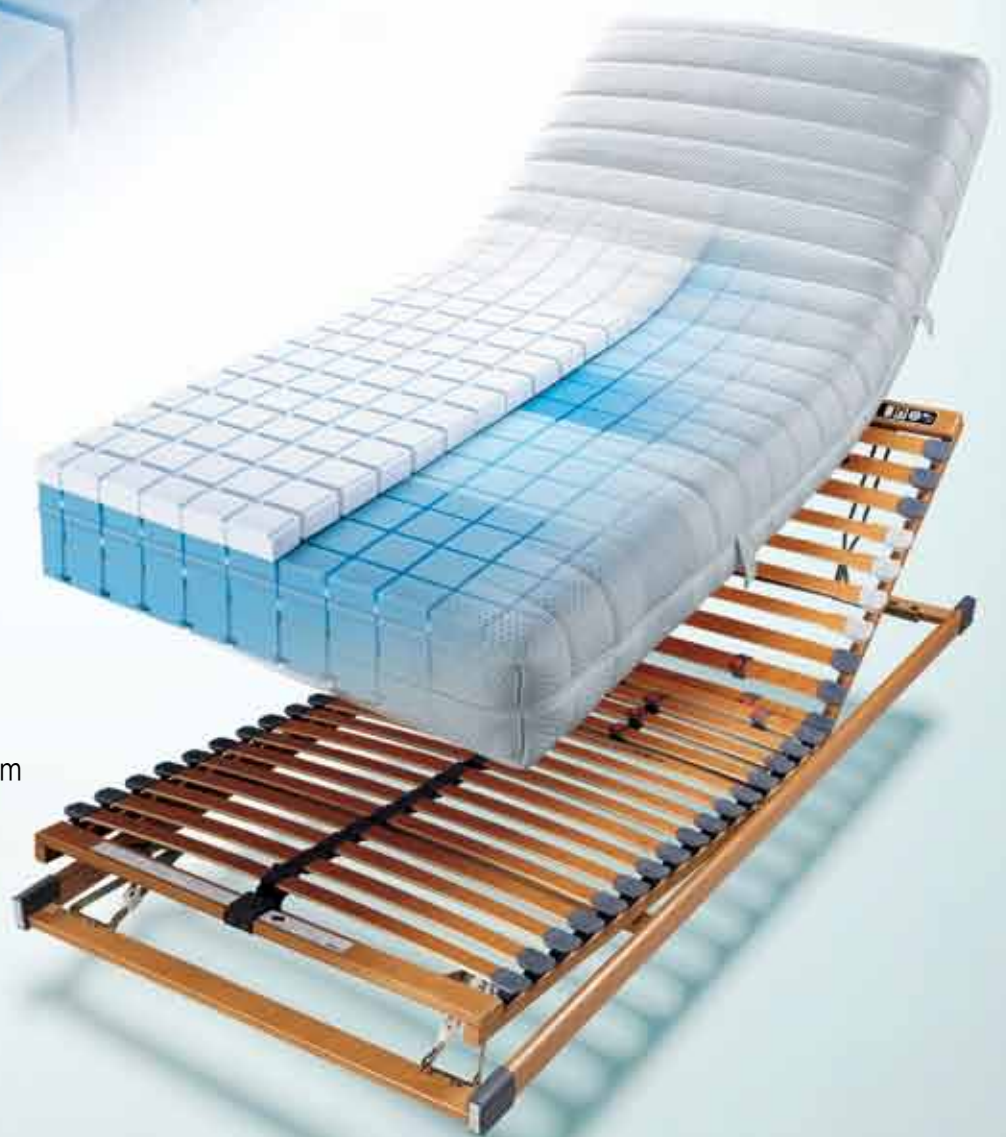
분리형 트위드가 작은면적에도 공기
순환으로 쾌적한 수면을 보장합니다

머리 : 3.05Kg

오래 사용해도 패임현상이 없는 HR*골드폼
매트리스가 변함없는 쿠션을 제공합니다

hülsta는 당신의 몸 하나 하나를 기억합니다

독일 기술이 선사하는 품격있는 수면 개별 맞춤 Sleeping System



HAIR LOSS TREATMENT

두피도 피부처럼 부지런히 관리해야 탈모를 막을 수 있다. 샴푸부터 에센스, 오일, 토닉 등의 제형도 종류도 다양한 탈모 방지 관리 제품들만 모았다. Writer 조가희 · Photographer 양수열(c. 영상미디어)

1 지성 및 건성 두피, 모낭 막힘, 술이 적어질 때 두피를 자극해 발모를 유발하는 스피어민트 & 메도우스윗 스칼프 스티मु레이팅 샴푸는 **존마스터스 오가닉**. 2 샴푸 전 비트레오실라 발효 성분이 두피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두피 스크럽제, 딥 마이크로-엑스폴리에이팅 스칼프 트리트먼트는 **키엘**. 100ml/3만원대. 3 97% 자연 식물 활성화 성분이 가늘어지는 모발을 보호하는 인바티 엑스폴리에이팅 샴푸는 **아베다**. 200ml/3만2천원. 4 탄력 있는 두피와 모발로 회복시켜주는 리버시 토닉은 **ATS**. 60ml/2만8천원. 5 수분 손실 방지 효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디바인 오일은 **코달리**. 50ml/5만원. 236ml/3만6천원. 6 건조한 두피와 푸석한 모발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너처링 샴푸는 **이솝**. 500ml/6만5천원. 7 아르간 오일이 모발과 두피를 부드럽게 세정해 모발의 윤기를 되살려주는 모로칸오일 하이드레이팅 샴푸는 **모로칸오일**. 250ml/3만2천원. 8 민감한 두피와 모발에 적합한 제품으로 건강한 두피 환경으로 가꿔주는 더헤어 케어 쉐데 포르테 파워 뷰티드롭 민감성 두피용 에센스는 **시세이도 프로페셔널**. 60ml/4만8천원.

이제 바깥바람은 제법 쌀쌀하다. 자연스레 옷깃을 여미게 되고, 보온에 신경 쓰게 된다. 그렇다면 그대로 찬 바람과 맞서는 모발은? 차갑고 건조한 겨울바람 앞에 가뜰이나 푸석푸석하고 영양가 없는 모발은 힘없이 무너진다. 요즘에는 탈모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고민은 시니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누구라도 탈모 예방을 위해 지금부터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가꾸려 노력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탈모 방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헤어 전문 브랜드 아베다 교육부의 구세원 차장에게 조언을 얻었다. “건강한 두피에서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으므로 탈모를 예방하려면 평상시 두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두피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천연 세정제로 매일매일 샴푸를 권장합니다. 두피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면 모공 속 노폐물과 각질 관리를 위한 집중 클렌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라면 마사지를 추천합니다.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마사지와 지압을 수시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두피부터 관리해야 모발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법. 두피도 매일매일 깨끗하게 세정해야 하고 단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문의
코달리 02-546-7424
모로칸오일 1666-5125
시세이도 프로페셔널 02-555-8839
아베다 02-3440-2940
이솝 1800-1987
존 마스터스 오가닉 02-566-9803
키엘 02-3497-9598
ATS 02-545-2170

“쉬!~” 피부 미인들만의 비밀

쿠션 속 수분은 달라야 한다!

미네랄 워터를 머금은 촉광쿠션



이지함 미네랄 인 쿠션

닥터코스메틱 이지함화장품

판매처 : 이지함화장품 쇼핑몰(www.ljhamall.com), 드럭스토어(GS윙스)
이지함 피부과 : 강남, 강북, 구리, 구미, 분당, 부산, 여의도, 이대, 일산, 청담, 천호, 평택
소비자 상담실 : 080-700-1544



1



2



3



4

Deep and Calm, NAVY

안정감, 고급스러움, 진중함 세 박자를 갖춘 색, 네이비다.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적절한 컬러를 고르기 힘들 때 네이비가 탁월한 선택이다.

Writer 조가희



5



6



9



7



8



1 작지만 강력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내는 모조 스피커는 2백60만원, **데이본 by 오디오갤러리**. 2 깊이 있는 블루 컬러가 고급스러운 지름 18cm의 무쇠 주물 냄비는 31만원대, **르크루제**. 3 뼈다귀 모양 손잡이가 독특한 애완견 밥그릇은 15만6천원, **알레씨 by 에잇컬러스**. 4 무게감 있는 스틸 소재로 튼튼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2D:3D 볼은 S 10만원, M 12만원, L 13만원, **핀치**. 5 기하학적인 패턴이 인상적인 쿠션은 5만7천원, **에이치픽스**. 6 유려한 곡선 라인이 돋보이는 화병은 18만원, **알바알토 by 이딸라**. 7 크리스마스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접시는 5만7천원대, **로열 코펜하겐 by 노르딕파크**. 8 숲, 부엉이, 여우 등의 동화적 소재에 영감을 받아 완성한 머그잔은 3만9천원, **따이가 by 이딸라**. 9 구조적인 실루엣이 세련된 무드를 자아내는 뽀뜨 디렉션 체어는 **비트라 by 에이후스** 3백20만원대. 10 잃어버리기 쉬운 작은 물품을 보관하기 좋은 수납함은, 4만7천원 **키커랜드**. 11 구스다운으로 충진한 트래블 필로우의 19만원, **해스텐스**. 12 행성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턴이 변하는 시계는, 13만원 **키커랜드**. 13 소나무 원목으로 제작한 마립가구 고유의 디자인으로 멋스럽게 완성한 의자는 90만원, **마립가구**. 14 다른 가구들과 잘 어울리고 폭신한 육각형 기둥의 리얼 굿 체어는 24만원, **핀치**. 15 파스타를 저어주거나 건져낼 때 사용하기 편한 조리도구는 8천원, **스바이코 by 에잇컬러스**. 16 기하학적 무늬를 기본으로 하여 둥근 공 위에 놓는 자수공예 작품 색실공은 34만원, **이윤미 작가 by 해브빈서울.com**. 17 벨기에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특이한 구조의 트레이 보관함은 16만5천원, **세락스 by 에잇컬러스**. 18 순면으로 이루어져 착용감이 부드럽고 편해 숙면을 취하도록 돕는 파자마는 33만원, **해스텐스**.



문의
노르딕파크 070-7801-1112
르크루제 02-3444-4841
에이치픽스 070-4656-0175
에잇컬러스 070-8654-3637
오디오갤러리 02-516-9055
키커랜드 02-562-8701
핀치 02-545-6662
해브빈서울 070-4415-1508
해스텐스 02-516-4973

이은경의 시계여행

유네스코가 인정한 시계 마을 라쇼드퐁 & 르로클 II

16세기 제네바에서 시작된 스위스 시계 산업은 쥐라 산맥의 가장 깊은 골짜기 마을 라쇼드퐁과 르로클에 이르러 꽃을 피웠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시계 산업이 발달한 도시, 시계 산업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도시, 라쇼드퐁과 르로클로 들어가보자.

Writer 이은경(시계 컨설턴트)



©La Chaux-de-Fonds/스위스정부관광청

만약 누군가가 라쇼드퐁이라는 작은 도시를 찾는다면 그 이유는 시계 때문이라기보다는 르 코르뷔지에라는 세계적인 건축가 때문일 수 있다. 건축학도나 건축 관련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르 코르뷔지에는 매우 유명한 건축가다. 마치 시계에 호가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처럼 말이다. 스위스 라쇼드퐁은 르 코르뷔지에의 고향이다. 그가 태어난 곳부터 그가 설계한 건축물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라쇼드퐁을 찾는다. 그러나 라쇼드퐁은 결코 건축학도만이 찾아가야 할 성지는 아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 이상은 찾아가야 하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고, 그곳에서 꼭 성지 순례를 해야 한다.

대형 화재 후 새롭게 태어난 도시, 라쇼드퐁

시계애호가들의 성지 순례 코스는 라쇼드퐁에 위치한 국제 시계 박물관에서 시작된다. 라쇼드퐁 기차역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5분 정도 가면 4천 개 이상의 시계가 모여 있는 국제 시계 박물관이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계가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스위스 패스가 있다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다른 박물관과 다르게 마음껏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입구에 진열되어 있는 수십 개의 중세시대의 종탑시계 내부 장치들부터 수백 개의 탁상시계를 모아놓은 벽면 등 곳곳이 시계애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국제 시계 박물관을 나오면 자케 드로의 길이 나온다. 18세기 오토마톤을 제작한 유명 시계 제작자 피에르 자케 드로의 이름을 그대로 본뜬 자케 드로의 길에는 라쇼드퐁 도시 박물관이 있다. 18세기 도시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로 인해 도시 자체를 시계 제조에 최적화하여 재설계한 이야기를 담은 15분 정도의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라쇼드퐁이라는 곳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시계 제





조에 최적화된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라쇼 드퐁 관광안내소가 있는 에스파시테(Espacite) 타워에 오르면 된다. 구시가지의 바라볼 수 있는 파노라마가 펼쳐지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태그호이어, 다울, 루이비통 등 LVMH 산하 시계 브랜드의 시계 제조 공장들은 서로 밀집해 있으며, 브라이틀링, 샤넬 같은 브랜드도 모두 라쇼드퐁 안에 자리해 있다. 르로클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가다보면 대로변에서 까르띠에, 파텍 필립, 자케 드로의 매뉴팩처를 볼 수 있다. 특히 투명유리로 설계된 까르띠에 매뉴팩처는 소나무로 둘러싸인 3만㎡에 달하는 푸른 들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제품의 개발과 생산, 고객 서비스라는 3개 분야를 주축으로 하여 세부적으로는 175개 부문의 시계 제조 기술이 집결되어 있다. 까르띠에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이 한곳에 집결시킴으로써 생산 전 공정에 대한 통일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시계 제조 도시답게 라쇼드퐁에서는 시계 제작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미리 예약을 하고 간다면 하루 코스 또는 2일의 스페셜 코스 등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작고 고풍스러운 도시, 르로클

르로클은 라쇼드퐁에서 기차로는 10분, 버스로는 20분 정도가 걸린다. 라쇼드퐁과 르로클이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지만 분위기는 르로클이 더 고풍스럽다. 르로클에도 샤토 데 몽(Château des Monts)이라는 시계 박물관이 있다. 규모 면에서는 라쇼드퐁 국제 시계 박물관보다 작지만 컬렉션은 매우 훌륭한 편이다.

제니스, 장 리샤르, 티쏘, 올리스 나르텐 등 르로클에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정통 시계 브랜드의 본사가 자리해 있다. 1665년에 스위스 라쇼드퐁과 르로클 사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워치 메이커 장 리샤르는 1681년 첫 시계를 만들며 워크숍을 설립했다. 직접 시계 제조를 위한 도구를 제작할 정도로 뛰어난 워치 메이커였던 장 리샤르 덕분에 라쇼드퐁과 르로클이 세계적인 시계 제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를 기념해 르로클에는 그의 동상에 세워져 있다. 장 리샤르는 2012년 케링 그룹의 후원으로 리론칭했다.

올해 창립 150주년을 맞은 제니스의 역사는 시계 제조가 아닌 무브먼트 제조부터 시작되었다. 여러 명의 장인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작업하는 시스템을 처음 적용, 최고의 무브먼트를 생산하기 시작한 시계 장인의 이름은 바로 조르주 파브르 자코, 제니스의 창업자다. 당시 그가 세운 제니스 공방은 르로클의 다른 시계 제조 공방과



- 1 라쇼드퐁 시내 풍경. 자연광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건물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되어 있다.
- 2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티쏘의 샤인 데 트렐 듀오 (Tissot Chemin des Tourelles Duo).
- 3 르로클에 위치한 시계 박물관 샤토 데 몽(Château des Monts).
- 4 르로클의 몽블랑 본사 전경.
- 5 엘 프리메로 크로노마스터 1969(EI Primero Chronomaster 1969). 세 개의 카운터를 각기 다른 컬러로 표현해 주목받은 제니스의 DNA를 고스란히 간직했다.
- 6 제니스 창업자인 조르주 파브르 자코.
- 7 라쇼드퐁에 위치한 브라이틀링 매뉴팩처.
- 8 라쇼드퐁의 하늘 아래 까르띠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1853년 설립된 티쏘는 르로클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브랜드다. 브랜드의 가장 클래식한 컬렉션의 이름도 바로 '르로클'이다. 올해에는 1907년 설립한 공방이 있던 르로클의 거리 이름을 사용한 '슈망 데 투렐'이라는 컬렉션을 론칭했다. 18세기 이후 마린 크로노미터를 제작하며 시계 제조 기술을 발전시켜온 올리스 나르텐은 시계 다이얼에 '르로클'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는다. 브랜드가 탄생한 곳, 워치 메이킹의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시계 제조'라는 단일 산업을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것을 보존해야 할 가치로 인정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시계 도시 르로클과 라쇼드퐁은 그 자체로 스위스 시계 산업을 대표한다.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움과 루체른과 베른 같은 오래된 도시의 아름다운 구시가지를 보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진정한 시계애호가라면 쥐라 산맥 해발 1000미터에 자리잡은 시계 마을에 꼭 방문해보길 권한다.



해외로 귀농할까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요즘, 해외 농산물뿐 아니라 해외 농업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우리의 선진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산업, 해외 농업에 대해 알아본다. Writer 황정원

농업은 신에너지와 함께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유망한 미래 산업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육류와 유제품 등 축산물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곧 사료로 쓰이는 곡물의 소비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산업화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GMO식품에 대한 우려 증폭 등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나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줄어 들고 있다. 지난 1960년대에는 36.2%에 달했지만 1995년에는 6%, 2014년에는 2.1%까지 떨어졌다.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1995년까지만 해도 95.7%였으나 2014년에는 61.5%로 집계됐으며, 2035년에는 41.2%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 미국을 비롯한 주요 농업 국가들과의 폭넓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특히 곡물자급률은 23%로, 현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한 3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10%까지 떨어진다. 만약 세계 곡물 시장이 급변해 가격 파동이 일어나면 오일쇼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이 우리 경제에 몰아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국내에 경작 가능한 농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높은 인건비, 청년들의 탈농촌 현상, 수입 농산물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국내 귀농 예산으로 해외 농업 가능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해외 농업이다. 해외 농업이란 말 그대로 우리 농업인과 기업이 해외로 진출, 현지에 농장을 개발하여 영농 활동을 하는 농장형·유통형 진출을 말한다. 알핏 해외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국내에서 귀농하는 것과 비슷한 예산으로 해외 농업에 도전할 수 있다. 여기에, 같은 값으로 국내보다 훨씬 넓은 농장에 훨씬 저렴한 인건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해외 농업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력을 통해 국민경제 및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 농·임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수입 곡물의 해외 생산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해외 농업 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 해외 농업 개발 진출 기업을 회원사로 해외농업개발협회(www.oads.or.kr)를 설립해 정보 수집·분석, 조사 연구,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부여했다. 그 후, 민간 차원의 해외 농업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러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호주 등 세계 각지에 우리의 농업이 뻗어나가게 되었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해외 농업에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민간협력력을 통해 브라질의 세라도 지역을 개발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개발 전 목초만 가득했던 황무지가 토양 개량 등을 통해 곡창지대로 변신했고, 브라질은 연간 4100만 톤의 대두를 생산하는 세계 2위의 생산국이 되었다. 또, 현지에 착유공장을 건설해 더욱 많은 고용 기회가 창출되었고 일본은 안정적으로 곡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해외농업개발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0월 현재 28개국에 163개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021년까지 국내 곡물소비량의 10%인 195만 톤 확보를 목표로 밀, 콩, 옥수수 등을 경작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연해주에 진출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흑자를 기록해 해외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철저한 준비와 정보 확보가 관건

그러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 농업 역시 철저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자칫 실패로 끝나기 쉽다. 산지 수매율과 수출 환경, 해당 국가의 정책, 연계 산업 현황, 국민성과 문화까지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

천신만고 끝에 현지에 안착해 훌륭한 농작물을 생산했다 해도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



1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나라통상의 농장 전경.

2 캄보디아의 MH바이오에너지. 넓고 비옥하다.

3 러시아 연해주 서울사료의 작업 모습.

4 캄보디아에서 열린 해외 농업 개발 영농전문가 양성 과정.

5 서울사료에서 생산한 사료용 옥수수가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6 러시아 연해주 현대중공업 저장시설.

7 해외농업개발협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워크숍과 세미나를 열어 최신 정보를 공유한다.



다. 바로 '얼마나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다. 초기 농장주들은 농장을 매입해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러다 정착 추수철이 다가오면 유통 경로와 저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손해를 줄이려면 대량생산된 농산물을 현지에서 즉시 가공·처리할 수 있는 공장 및 저장 시설 등 첨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콩 농장 옆에 착유공장을 짓고, 밀 농장 옆에 제분공장을 짓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짐과 동시에 저장 및 유통 과정 또한 수월해진다.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 곡물 가격 협상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현재 정부에서는 해외 농업에 진출하는 영농인들을 위해 정보와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상태다.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진기준 팀장은 "해외 농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해외 농업 개발의 활성화가 중요하고, 민간협력과 함께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이 절실합니다"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해외 농업은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다. 일본과 세라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지 농업과 토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나아가 해당 지역의 근본적 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해외 농업에 관심이 있다면 다양한 정보와 교육,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협회의 문을 두드려보자. 김일환 부회장은 "해외 농업은 현지에 가기 전 가급적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외농업개발협회에서는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꼭 필요한 정보, 기본 개념과 투자 여건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해외 농업 개발 기초 소양교육과 해외 영농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농업 개발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환경조사를 지원하고 주요 14개국에 해외 통신원을 두어 최신 정보를 수집, 보고서를 제공하는 한편, 분기별로 <해외농업저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할당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국내 반입 등에도 도움을 드리며, 현지 농업인들의 경험담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세미나와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라며 "현재 우리 농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해외 농업은 상당히 비전이 있는 사업이며, 앞으로 해외 농업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당부했다.

해외 농업 개발이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 영농인뿐 아니라 청년 농업인, 귀농을 준비하는 은퇴예정자 등 해외 농업의 새로운 얼굴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약차로 지키는 겨울철 건강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환절기 11월, 약차와 가까워져야 할 때다.

은은한 약재 향기 가득한 차의 온기가 온몸을 감싸주어 면역력을 높여주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줄 것이다.

Writer 조가희 · Photographer 양수열(C. 영상미디어)

☕ 우려 먹는 약차

1 비타민 C가 풍부한 감잎차 – 한방차 중 비타민 C가 가장 많은 감잎차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 기온이나 환경 변화에도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감나무의 어린잎을 햇볕에 말린다. 찻잔에 감잎 3~5g을 넣고 80℃ 정도의 따뜻한 물 200ml를 부어 5분간 우린다.

2 감기 증상과 염증을 완화하는 박하차 – 박하의 시원하고 상쾌한 향기로 코감기나 두통, 눈 충혈, 인후통, 어깨 결림 등 상체의 가벼운 염증을 발산시켜 가라앉힌다.

*찻잔에 볶은(또는 말린) 박하를 3g 넣고, 뜨거운 물 200ml를 부어 3분간 우린다.

3 가벼운 감기에는 자소엽차 – 자소엽은 감기나 냉방병에 좋은 효과적인 약차다. 평소 속이 냉하고 배탈이 잦은 사람이 자소엽 차를 즐겨 마시는 것이 좋다.

*자소엽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린 후 프라이팬에 넣고 약한 불에 가볍게 살짝 볶는다. 찻잔에 볶은 자소엽 1g을 넣고 뜨거운 물 200ml를 부어 2분간 우린다.

🍵 끓여 먹는 약차

4 건조한 호흡기를 촉촉하게 맥문동차 – 맥문동의 윤택한 성질이 호흡기에 진액을 보충해준다. 잦은 기침, 마른기침, 오랫동안 지속한 기침에 좋고, 가슴이 불안하면서 입이 잘 마르는 경우와 변비에 좋다.

*물 1L에 맥문동 10g을 넣고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 30분간 더 끓인다.

5 수족냉증에 효과적인 당귀차 – 여성건강의 대표 약재로 유명한 당귀는 혈액순환을 돕는다. 아랫배가 차거나 빈혈로 인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 혈액순환 장애 등에 효과적이다.

*당귀를 3mm 두께로 얇게 썰어 그늘에 말린다. 물 1L에 당귀 10g을 넣고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 20~30분간 더 끓인다.

6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계피차 – 계피차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다. 아랫배와 손발이 찬 여성의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풀어주고, 남성에게도 따뜻한 기운을 북돋우는 작용을 한다.

*물 1L에 계피 10g을 넣고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 20분간 더 끓인다.

7 잔기침이 잦을 때 모과차 – 모과의 새콤한 맛이 목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한다. 기관지가 건조해져 잔기침이 많아지고 목을 많이 사용해 항상 목소리가 잠긴 듯 성대가 부담을 받고 있을 때 효과적이다.

*물 1L에 말린 모과 5g을 넣고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20분간 더 끓인다.

8 가래가 잦고 목이 아플 때 도라지차 – 도라지에는 기관지의 점액분비를 촉진하는 사포닌이 풍부해 가래와 기침을 완화한다. 기관지염이나 인후염, 편도선염 등 주로 인후부, 기관지 등의 염증을 가라앉힌다.

*물 1L에 말린 도라지 10g을 넣고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 20분간 더 끓인다.

9 은은하게 빛나는 촛불은 티타임을 즐길 때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3만5천원, 기비 보티브 by 이딸라.

매일 마셔도 좋은 건강 약차, 1日 1茶

지은이 허담 | 1만2천원 | 다온북스

한 잔의 차를 마시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책이다. 건강에 이롭다는 약차 재료는 많지만, 아직 대중과 가깝지 않은 게 현실. “약초를 연구하고 맛보고 만들어온 경험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약차의 원재료를 구해 차를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마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한의사 허담이 전해주는 약차 이야기. 약차의 종류부터 활용법까지 약차의 신세계가 펼쳐진다.





혼슈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다

1

겨울에 국내 골퍼들이 많이 찾는 곳은 일본, 그중에서도 요즘 많은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이 있다. 일본을 구성하는 4개의 섬 중 가장 큰 섬인 혼슈. 온화한 기후 속에서 여유로운 라운딩을 즐기고 싶다면 혼슈로 눈을 돌려봐도 좋겠다. Writer 이은정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국내에서는 최적의 라운딩을 즐기기가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골프의 오랜 전통과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아마구치 현에 있는 '우베 72컨트리클럽'이라면 겨우내 펼치지 못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아마구치 현 우베72CC가 있는 일본 혼슈의 아마구치 현은 겨울철에도 바람이 적고 낮 기온이 10~15℃로 온화한 기후가 특징이다. 풍부한 자연과 대규모 온천지구가 있어 동계 골프투어의 여행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골프코스는 라운딩의 재미를 더해주고, 천혜의 자연경관에 둘러싸인 호텔에서는 품격 있는 휴식을 맞볼 수 있다.

우베 72CC에서만 맛보는 라운딩 코스 4

1960년 개장한 우베 72컨트리클럽은 일본 골프의 전통과 역사를 품은 곳이다. 서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골프장으로 4가지 종류의 다양한 코스를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아지스 코스(7170야드 파72)는 50여 년 전 골프장이 오픈할 시기에 '작은 식물도 그대로 보존해 자연 그대로 남기자'라는 주제로 개발되었다. 일본의 코스 설계 명장인 우에다가 디자인했는데, 벌목을 최소화하고 숲에서 느껴지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남기기 위해 노력한 코스다.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해 자연미를 느낄 수 있는 산림코스로 울창한 나무 속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싶다면 아지스 코스가 제격이다.

만년이케 동코스(7053야드 파72)는 1967년 6월 오픈했다. 연못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호반 코스로 그 풍경이 일품이다. 잔잔하게 흐르는 만년 호수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차분하고 정적인 분위기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다리를 건너 그린으로 이동하는 아일랜드홀인 '12번 파 3홀'은 우베 72컨트리클럽을 대표하는 코스다. 사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호수의 다채로운 변화가 느껴지는 코스 배치로 인기가 있다. 전 일본 시니어 오픈 개최지로 일본프로골퍼인 아오키 선수가 5연패한 명문코스이며, 1976년 일본 남자프로대회인 제5회 펄스 월 송 토너먼트를 처음으로 토너먼트 대회를 다수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 골프 선수 최경주가 우승한 대회의 코스도 바로 이곳이다.

만년이케 서코스(6844야드 파72)는 1975년에 목장을 이용해 조성한 우아한 구릉 코스다. 페어웨이가 완만한 비교적 평면적인 설계로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초보자 및 여성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많이 찾는 평지 코스다. 일본 남자프로대회인 '우베 흥산 토너먼트'와 메이저대회인 '일본 여자오픈'이 열리기도 했다.

에바타 코스(6981야드 파72)는 2000년에 오픈했다. 코스 디자인계에서 빛과 그림자의 마술사로 불리는 로버트 볼레키가 현대적인 기법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서구적인 분위기의 페어웨이는 연못과 습지대, 벙커를 과감히 배치한 전례 없는 개성적인 코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략적인 게임을 요하는 코스로 정평이 나 있고 페어웨이 굴곡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코스를 공략할 수 있어 초보자를



- 1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호수와 숲이 장관을 이루는 우베 72CC 모습.
- 2 유다 온천지구에 있는 도키와 호텔의 노천탕.
- 3 다다미방 인테리어로 일본 전통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도키와 호텔 내부.
- 4 깔끔하게 정돈된 호텔 내부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터 상급자까지 실력에 따라 골프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마구치 현을 방문할 때 후쿠오카 공항이나 히로시마 공항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 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골퍼들도 있었다. 하지만 2015년 12월 4일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아시아나 항공이 아마구치 우베 공항 직항 전세기편을 운항해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직항 전세기편을 이용하게 되면 아마구치 우베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15~20분이면 충분하다. 이동 거리가 멀어서 방문을 망설이고 있던 골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

아마구치 현에서의 특권, 온천

숙박은 각 코스에서 약 5분 거리로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는 아지스 스파 호텔을 추천한다. 골프장과 가깝고 자연 속에 위치한 호텔로,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휴식을 돕는다. 또한, 아마구치 현의 최대 온천 마을인 유다 온천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골프를 즐기고 곧바로 심신을 회복하기에 좋다. 유다 온천은 약 800년 전에 흰여우가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우연히 발견된 온천이라고 전해지는 곳으로 그 역사와 명성이 매우 높다. 무색투명한 온천수는 피로 해소, 건강 증진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며 피부에 부드럽게 잘 스며드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온천 료간이 마련되어 있는 유다 온천에서 일본 골퍼 여행을 따뜻하게 마무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02-6349-4949

홈페이지 www.jholiday.kr



삶에 재미와 희망을 주는 ‘텃밭 이야기’

요즘 노후 고민을 덜어주는 도시농업에 시니어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니어 포털 유어스테이지 홈페이지(www.yourstage.com)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뮤니티 또한 텃밭을 일구는 회원들의 일상을 담은 ‘텃밭 이야기’다.

텃밭을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정을 쏟는 두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Writer 이채현 · Photographer 염동우(C. 영상미디어)



1 2필지를 분양받아 여러 농작물을 키우는 윤정자 씨네 주말 농장.
2 텃밭에서 키운 파를 한아름 들고 있는 윤정자 씨.



“텃밭이라는 또 하나의 대자연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윤정자(닉네임 동심초)

윤정자 씨가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우기 시작한 지 11년째다. 평소 건강한 먹을거리와 요리에 관심이 많아 공부를 하던 중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도 소용이 없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섭생의 방법으로 먹거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채소는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또 오랜 유통 과정을 거치는 동안 채소의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화학 처리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열매가 온전히 익기 전에 수확하기 때문에 맛과 영양이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내가 직접 재배한 근거리 채소는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윤정자 씨는 텃밭을 시작하게 됐다.

집에서 차로 10분 안팎의 거리에 위치한 주말농장을 활용해 채소를 재배하는 윤정자 씨는 11년의 텃밭 재배 노하우를 살려 여러 작물을 재배한다. 쌈채소와 더불어 샐러드 채소, 기능성 채소, 열매 채소, 뿌리 채소를 비롯해 김치거리 등 가짓수로는 30가지 정도 된다. 건강요리에 관심을 두고 꾸준한 공부를 통해 채소의 효능도 일일이 꿰뚫고 있는 윤정자 씨의 텃밭은 브로콜리, 콜라비, 그리고 각종 허브 등 건강 기능성 채소가 많은 게 특징이다. ‘내 가족의 건강 식탁을 위한 시장’이나 다름없다. 여름에는 떠오르는 태양의 붉은빛을 보며 텃밭으로 차를 몰고 가는 길부터가 마음의 위로와 위안이 된다고 말한다. 텃밭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때 느끼는 행복, 정성을 쏟은 텃밭에서 식물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거짓 없는 정직함, 내가 수확한 식물을 주변에 나눔으로써 느끼는 보람과 기쁨 등 텃밭을 가꾸는 것 자체가 윤정자 씨에게는 힐링이다. 그래서 해마다 텃밭을 시작하는 4월이 기다려진다.

윤정자 씨는 요즘 유어스테이지의 ‘텃밭 이야기’에 텃밭을 일구며 느끼는 재미와 행복을 글과 사진을 통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일이 즐겁다. 11년 동안 텃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궁금해하는 누구에게든 나눠줄 준비가 돼 있다.

친구들과 만나 의미 없는 수다를 즐기는 시간보다 내가 맘 흘려 재배한 채소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훨씬 의미 있다는 윤정자 씨는 ‘텃밭 이야기’를 통해 여러 사람의 텃밭을 구경하고 온라인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느껴보라고 권한다.

“텃밭을 통해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규옥(닉네임 서울아씨)

시니어조선 명예기자이자 유어스테이지에서도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규옥 씨는 아파트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3년째 도시농부의 삶을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올해 초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정년 퇴직한 조규옥 씨는 퇴직 후 시골에 내려가 집 앞에 텃밭을 만들어 가꾸며 사는 게 꿈이었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우여곡절 끝에 옥상에 텃밭을 만들게 됐다. 퇴직 2년 전부터 시작한 텃밭을 좀 더 잘해보겠다는 생각에 올해 초부터 지역 구청의 도시농업 강의를 듣게 됐고, 선생님이로 일한 조규옥 씨만의 특징점을 살려 수료 후 지역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 재미로 시작한 텃밭으로 인해 제2의 인생의 막을 올릴 준비를 하게 된 셈이다. 흙을 퍼 날라 밭을 만들었을까? 아파트 옥상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의아했지만 농사를 짓는 데 꼭 넓은 땅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커다란 화분만 있으면 어떤 채소든 심고 기를 수 있다. 조규옥 씨는 상추, 깻잎, 고추, 가지, 호박, 토마토는 기본이고 열무, 알타리 무, 배추, 파 등의 김치거리와 참외, 딸기, 수박, 심지어 알프스오토메에 이르기까지 상자 텃밭에서 기른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도 울여름을 풍성하게 보냈다. 심지어 작년에는 상자 텃밭에서 기른 배추로 경진대회에 나가 2등의 영예도 안았다고. 물론 잘 주면 절로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하게 되는 줄로만 알고 시작한 농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3년째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 자라서 열매 맺는 과정의 쓸쓸한 재미, 내가 직접 키운 채소를 나눔으로써 맛보는 배움의 기쁨, 그리고 7살 손자에게 수확의 재미와 의미를 알려주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되니 도시농업이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많다는 조규옥 씨. 또 옥상 텃밭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한다. 조규옥 씨는 모든 일이 그렇듯 도시농업 또한 실천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주위의 여러 지인이 도시농업을 하는 조규옥 씨를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유어스테이지 ‘텃밭 이야기’에 글을 올린 지 1년. 그동안 네 텃밭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내가 가진 정보를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의 텃밭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도시농업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다. 조규옥 씨는 텃밭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우선 실천에 옮길 것을 권한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유어스테이지의 커뮤니티 ‘텃밭 이야기’를 통해 공유하면 텃밭 선배들이 멘토가 돼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니 활용해보기를 권한다.



3 상자 텃밭을 활용한 조규옥 씨네 옥상 텃밭.

4 직접 키운 고추를 김장 때 쓰려고 말리고 있는 조규옥 씨.

인생 제2막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

시니어파트너즈 앙코르스쿨

중장년 교육 전문기업 ㈜시니어파트너즈는 시니어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올가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단순 취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수익 창출이 가능한 강사 양성 프로그램까지 있으니 눈여겨보자. Writer 구희근(시니어파트너즈 교육운영팀장)

중장년 교육 전문기업 ㈜시니어파트너즈(대표 박은경)는 2015년 가을학기를 맞아 시니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시니어의 인생 제2막(현역 활동 및 수익 창출)을 위한 강사 양성 과정을 비롯해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시니어파트너즈에서는 이번 교육 과정 오픈을 시작으로 향후 시니어의 삶의 활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강할 예정이다.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만나 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특히 이번 교육 프로그램 신청 시 교육 수강 포인트 지급, 공연 관람권 증정을 비롯해 신청자 전원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브레인컬러 코디네이터 과정

- **강의 일자** : 10월 30일 금요일, 1일 과정
- **강의 시간** : 오전 10시~오후 7시(1회 8시간 진행)
- **교육 비용** : 20만원
- **교육의 특징점**

- ① 시니어층이 쉽게 배워 진단 및 해석이 가능한 성향 진단 도구.
- ② 진단 스킬을 활용해 지인들의 성향(성격) 진단과 진로 탐색에 도움 제공.
- ③ 브레인컬러 1기 코디네이터 활동 연계를 통한 수익 창출.

캘리그래피 초급반

- **강의 일자** : 2015년 11월 5일~2016년 1월 21일, 매주 목요일, 총 10회
- **강의 시간** : 오후 2시~오후 4시(매회 2시간 진행)
- **교육 비용** : 20만원
- **교육의 특징점**

- ① 합리적인 교육비용.
- ② 자신만의 아름다운 서체를 활용한 작품 완성.
- ③ 한국 캘리그래피 디자인협회 강사의 특강.

시니어 사진강좌 초급반

- **강의 일자** : 10월 28일~12월 16일, 매주 수요일, 총 8회(야외 출사 3회 추가 진행)
- **강의 시간** : 오후 2시~오후 4시(매회 2시간 진행)
- **교육 비용** : 20만원
- **교육의 특징점**

- ① 카메라 기초 활용법을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절하게 전수.

- ② 카메라 기초 활용법 학습 후 자신만의 주제 선정과 그에 대한 집중 실습.
- ③ 3번의 야외 출사를 통한 힐링의 기회.

한문교육지도사 양성 과정

- **강의 일자** : 11월 2일 ~ 12월 21일, 매주 월요일, 총 8회
- **강의 시간** : 오후 1시~오후 6시(매회 5시간 진행)
- **교육 비용** : 40만원
- **교육의 특징점**

- ① 그림·노래를 활용해 한문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교육 콘텐츠로 시니어층이 쉽게 배워 유·아동에게 지도 가능.
- ② 무자본 홈스쿨링 창업으로, 별도의 투자비용 없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지도원 창업으로 연계 가능한 교육.
- ③ 주민센터, 복지관, 방과후 학교 등 각종 기관에서 한문 교육 특강 강사로서 활동 가능.
- ④ 손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한문 지도자 역할 수행 가능.

시니어 꽃 만들기 교실

- **강의 일자** : 11월 3일 ~ 11월 24일, 매주 화요일, 총 4회
- **강의 시간** : 오후반 / 오후 2시~오후 4시(매회 2시간 진행)
야간반 / 오후 7시~오후 9시(매회 2시간 진행)
- **교육 비용** : 22만원

상세한 교육 과정은 ㈜유어스테이지 홈페이지(www.yourstage.com/encoreschool) 참조.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앙코르스쿨' 검색)
문의 및 신청 ㈜시니어파트너즈 교육운영(02-3218-6246, 6248)

• 교육의 특징점

- ① 타 교육과정 대비 저렴한 수강료, 타 교육기관 대비 50% 이상의 풍성한 재료 제공.
- ② 담당 플로리스트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 ③ 완성한 꽃 작품으로 화사한 집 안 분위기 형성.

행복한 빵 굽기 교실

- **강의 일자** : 10월 29일 ~ 11월 19일, 매주 목요일, 총 4회
- **강의 시간** : 오후 3시~오후 5시(매회 2시간 진행)
- **교육 비용** : 18만원
- **교육의 특징점**

- ① 직접 구운 케이크, 빵과 쿠키를 가족들에게 선물 가능.
- ② 따라 하기 쉬운, 제공된 레시피로 홈 베이킹 가능.
- ③ 전문 베이킹 아카데미 협약을 통한 자격할인가 혜택.

시니어 건강 요리교실

- **강의 일자** : 11월 11일 ~ 12월 2일, 매주 수요일, 총 4회
- **강의 시간** : 오후 3시~오후 5시(매회 2시간 진행)
- **교육 비용** : 23만5천원
- **교육의 특징점**

- ① 레시피 제공을 통해 집에서도 똑같은 요리 가능.
- ② 직접 담근 막걸리와 고추장으로 건강한 식단 완성.
- ③ '2015년 소비자 만족도 및 신뢰도' 1위 한솔요리학원 협약을 통한 최고 수준의 요리 강좌 제공.



FURNITURE

영동 가구, 히몰라 7509 코지폼 오피스

독일 최대 규모의 업홀스터리 가구 제조업체 히몰라가 '7509 코지폼 오피스' 의자를 선보인다. 리클라이너 겸 책상 의자인 '7509 코지폼 오피스'는 오랫동안 앉아서 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히몰라의 코지폼 오피스는 60년 이상의 숙련공 기술과 30년 리클라이너 제조 노하우가 접목되어 탄생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언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 낮낮이와 헤드레스트 조절이 가능하다.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어느 순간에나 다리를 뻗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매일 변하는 신체 리듬에도 언제나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한다. 문의 02-547-7850

CAR



BMW 코리아, 뉴 3시리즈 출시

BMW 코리아가 7가지의 다양한 세단과 투어링 라인업으로 무장한 BMW 뉴 3시리즈 모델을 국내에 공식 선보인다. 더욱 날렵해진 디자인의 뉴 3시리즈 모델은 운전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드라이빙을 선사한다. 문의 02-2038-8215

WATCH



몽블랑, BMW 스페셜 에디션

몽블랑이 BMW 7시리즈 론칭을 기념해 레더 소품과 필기구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럭셔리 메종과 다이내믹한 카 메이커를 이어주는 기술 혁신의 정신과 품격 있는 전통에 영감 받아 탄생했다. 문의 02-3440-5734

WATCH



로저드뷔, 2015 워치스&원더스 이벤트

로저드뷔가 지난 10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고급 시계 박람회 워치스&원더스에 참가했다. 로저드뷔 부스의 테마는 '아스트랄 스칼레토의 해'로 정해, 천체를 연상시키는 독창적인 별 모양 디자인으로 많은 참가자의 눈길을 끌었다. 문의 02-3440-5812

WATCH



예거 르쿨트르, 마스터 울트라 썬 캘린더 NEW

예거 르쿨트르가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마스터 울트라 썬 캘린더 화이트 골드 워치를 새롭게 선보인다. 39mm 사이즈의 다이얼 위에 대칭 구조로 세팅한 인덱스, 캘린더, 문패이즈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6905-3998

FASHION



컬럼비아, F/W 광고 공개

컬럼비아가 이번 시즌 컬럼비아의 거트 보일 회장이 출연한 '테스티드 터프' 제품의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테스트드 터프 광고에서는 컬럼비아와 거트 보일 회장의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완벽, 그 이상을 추구'라는 브랜드의 철학을 표현했다. 문의 02-540-0277

LIVING



베라왕 홈, 국내 정식 론칭

베라왕의 유아한 감성을 담은 베라왕 홈을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다. '베라 웨딩컬렉션 베딩세트'가 바로 베라왕 홈의 첫 번째 컬렉션이다.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이 컬렉션은 베라 그레이, 마르살라 핑크, 노블 베이지 등으로 다양하게 출시한다. 문의 080-000-8000



WATCH

론진, 히스토리컬 워치 전시회

올해로 브랜드 출시 183주년을 맞이한 론진이 특별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스위스 생티미에의 론진 박물관에 소장 및 전시되어 있는 시계 중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약 40피스의 '히스토리컬 워치'를 소개한다. 그 외에도 지난 18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 제작된 리미티드 모델들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0월 워커힌면세점을 시작으로, 노보텔 엠베서더 수원, 신세계 영등포점 등에서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무리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코엑스몰 아워파크에서도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02-551-1982

FASHION



버버리, 버버리 헤리티지 스카프

버버리가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헤리티지 스카프를 선보인다.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이 스카프는 캐시미어로 만들어 보온성이 뛰어나고 부드럽다. 색상은 캐벌, 블랙, 아이보리와 레드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85-6536

WATCH



지방시 워치, 파이프 샤크 컬렉션

지방시 워치가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를 담은 파이프 샤크 컬렉션을 선보인다. 독특한 8각형 베젤과 심플한 도트와 바 인덱스가 인상적인 시계다. 튼튼한 우레탄 소재와 스틸을 믹스한 스트랩으로 각종 레저와 야외활동에 적합하다. 문의 02-3284-1300

STAGE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동명 원작의 대사사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사뭇데 시어터에서 11월 17일 개막한다. 스칼렛 오히라 역에는 김소현, 바다, 김지우 등이, 레트 버틀러 역에는 남경주, 신성우 등으로 대작의 주역들이 캐스팅되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의 1577-3363

HOTEL



클럽메드, 스노우 리조트

클럽메드에서 특별한 스키 휴가의 기회를 마련했다. 스키 및 스노보드 라이딩, 리프트와 곤돌라 이용권, 수준별 무료 강습까지 모두 포함된 '스키 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국의 아불리 리조트와 일본의 홋카이도 리조트는 최대 4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3452-0123

BEAUTY



아베다, '스트레스-픽스™ 세트'

아베다가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스트레스-픽스™ 핸드 & 아로마 세트를 제안한다. 프렌치 라벤더, 라반딘 등을 블렌딩해 개발한 스트레스-픽스™ 아로마를 함유한 핸드 크림과 기본 전환이 필요할 때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컨센트레이트로 구성했다. 문의 02-3440-2940

LIFE



에어비앤비 코리아, 시니어 호스트

글로벌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여행자와 숙박을 공유하는 시니어 호스트를 제안한다. 여유 공간이 많은 시니어의 집에서 여행자와 함께 숙박을 공유하는 것이다. 전 세계 시니어 호스트들은 숙박 공유로 얻은 추가 수입을 여유 자금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문의 080-822-0230

BOOK



상속전쟁

상속과 증여는 얼마나 법을 잘 아느냐,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하늘과 땅을 오갈 수 있다. 실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상속법에 대한 책. TV 시리즈 <사랑과 전쟁>도 올고 갈 기구한 사연들이 재미만점이다. 구상수·마상미 지음, 길벗, 1만4천5백원.



착한 집에 살다

4명의 여성 건축 전문가가 찾아낸 평생 살고 싶은 집 10곳과 그들의 먹고사는 이야기. 녹색이 풍성한 집, 흙으로 지은 집, 목조연립 등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집들의 풍경과 따스한 이웃의 모습이 눈을 즐겁게 한다. 쓰나가루스 지음, 장인주 옮김, 휴, 1만5천원.



그들의 눈빛 속에 비밀이 있다

2010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의 원작으로 두 번이나 영화화된 화제의 소설. 법원 사무장을 그만둔 저자가 30년간 마음속에 간직했던 이야기를 화대의 역작으로 빛냈다. 극적인 반전이 포인트. 에두아르도 사체리 지음, 조영실 옮김, 휴스, 1만3천원.



통하다, 독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기관인 한성전보총국의 개국 130년을 맞아 정보통신 발달사와 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엮은 책. 국내 ICT 역사와 함께한 다양한 인물 인터뷰와 별권으로 엮은 신동민 작가의 재치 있는 그림이 흥미롭다. KT 기획, 라이크컴퍼니, 1만5천원.

The Musical Show
AUTANT EN EMPORTE LE VENT
by GÉRARD PRESGURVIC

2015 흥행대작 더 큰 감동으로 돌아온다!

Based on the Novel
"GONE WITH THE WIND"
by MARGARET MITCHELL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그 이름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명작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AUTANT EN EMPORTE LE VENT

11.17 Grand Opening | 샤롯데씨어터 |

👁 김소현 바다 김지우 남경주 신성우 김법래 윤형렬 에녹 정상윤 손준호 오진영 정단영 외 👁

프리뷰 최대 40%(11/13~11/15일 공연) ◆ 마티네 30%(매주 수요일 3시 공연) ◆ 문화가 있는 날 최대 50%(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공연)

비씨카드와 함께합니다

주최: 에스24 인터파크 하니프리티켓 BC LOUNGE 샤롯데씨어터 공연문의 1577-3363 (공연시간대) 070-4489-9550 (오전/오후) 후원: MBC SMC 제작: SMC 후너스 엔터테인먼트 무지: S.M. Contents Production GB 보스톤 엔터테인먼트 후원: KIBO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 비씨카드 후원: CLIP service

www.showmediakr | www.facebook.com/gwtw2015 | Owners and Licensors of "Autant en emporte le Vent"-Dreamers Licensing PTE. Limited email: manager@dreamerssg

DESIGN^{AND}TECHNOLOGY.



RADIOMIR 1940
3 DAYS AUTOMATIC
ORO ROSSO (REF. 573)

PANERAI
LABORATORIO DI IDEE.

현대 압구정본점 2F 02-3449-5922 갤러리아 EAST 1F 02-512-6088
신세계 본점 B1F 02-778-7870 신세계 강남점 2F 02-3479-1986 신세계 센텀시티점 2F 051-745-1350
파네라이 제품은 위의 공식 매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PANERAI.COM